

한마음 한몸



SPECIAL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조건
나눔은 흐르는 음악처럼

2016 가을호 통권 31호

One-Body One-Spirit MAGAZINE
vol. 31 / Fall / www.obos.or.kr



CONTENTS

SPECIAL

- 3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조건
- 5 나눔은 흐르는 음악처럼

HOPE

- 8 내 이웃이 겪는 매일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
- 10 당신의 나눔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NOW

- 12 함께하는 마음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 14 따레빌에서 심은 변화의 씨앗

TOGETHER

- 16 가게는 변해도 나눔은 그대로
- 18 생애첫기부
- 20 본부 새소식
- 22 [캠페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OVER STORY



“친구들이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해요.”
네 번째 기부의 주인공,
다섯 살 서민지(마리스텔라) 양

통권 31호 | 가을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 2016년 가을호

디자인 slowalk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SPECIAL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조건

박해시대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인이라는 신분이 발각되면 배교를 하지 않는 한 모진 고문이나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관군이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아마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라,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신앙의 선조들이 위대한 이유는, 모진 박해와 핍박 아래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참 신앙인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순교(Martyrdom)’. 한국의 신앙인이라면 이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조상들의 공로로 현재 한국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나 자신은 신앙과 배교의 갈림길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만 그러리라 생각하겠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처절하고 급박한 상황을 견뎌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의 ‘순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봉헌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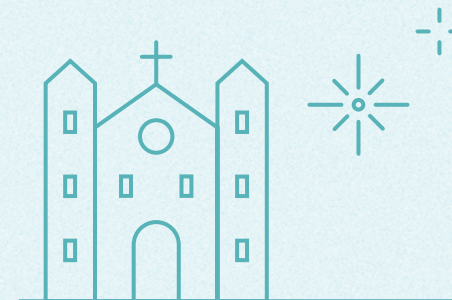
가톨릭교회의 교리에는 믿을 교리와 그 교리를 바탕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의 성경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마태 22, 35-40

이 두 계명 중 첫째 계명의 하느님 사랑은 믿어야만 하는 교리이며, 둘째 계명은 실천해야 하는 교리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 2005) 15항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할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중략)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이들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16항에서는 요한의 첫째 서간을 인용하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불가분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너무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이웃에게 폐쇄적이거나 이웃을 미워한다면 곧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부분은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1874년에 '한국 천주교회사'를 출판한 달레 (Dallet, 1829~1878) 신부는 '당시는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고, 영농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기근이 들면 일반 백성들은 식량부족으로 부항증이 생기고 굶어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천주교 교우촌에서는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눔으로써, 신앙을 지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오 복음 14장의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군중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실천하였기에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찰 정도의 음식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눔은 기쁨을 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사랑으로 자라나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을 참 신앙인이 되게 하는 '나눔의 기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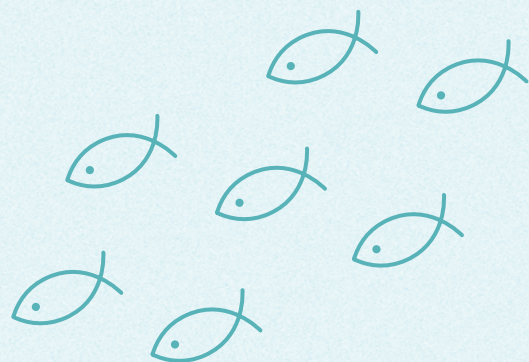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국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경제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양극화, 비정규직화, 신용불량자 급증, 당리당락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인사사고, 심각한 바이러스의 확산 등 어두운 이면 또한 존재합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은 분쟁, 테러, 재해,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이 현재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빈곤의 극복을 위한 당사자 및 당사국 스스로의 의지와 더불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신자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의 기부문화, 나눔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나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나눔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배려의 복음적 방법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 빈곤의 문제가 각 개인, 지역,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형제적 친교를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나눔의 문화가 꽃피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인류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 안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문화가 정착된 세상이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 '나눔'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이자 의무이며, 나아가 현대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순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나눔은 흐르는 음악처럼

그룹 '부활' 서재혁(라파엘) 님 인터뷰

지난 2016년 4월, 본부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룹 '부활'의 베이스리스트인 서재혁(라파엘) 님과 그의 아내 박은영(세실리아) 님, 그리고 이들의 새 식구가 될 태중의 복덩이(태명)였습니다. 이날 본부의 최연소 기부자 중 한 명으로서 생애첫기부의 주인공이 된 복덩이는 지난 7월, 건강하게 태어나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복덩이 준영이의 아버지 서재혁 님을 만나 삶과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 연주자, 교수, 작곡가.
그리고 아빠**

안녕하세요. 우선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독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재혁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룹 부활이라는 팀에서 1999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영화음악이나 광고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에서 6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력하는 일은 복덩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원해서 어렵게 얻게 된 선물인데, 키우는 일은 또 다르더라고요.

준영이가 본부 최연소 기부자 중 한 명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태명 '복덩이'로 기부하셨는데요. 준영이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세요?
별로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리고 넓게 살았으면 해요. 11월 첫째 주에는 유아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세례명은 정하셨나요?
제 바람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사의 이름(라파엘)으로 세례명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날개를 가진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침 라파엘이 치료의 수호신이고 아내의 직업이 의사이기도 해요. 이런 운명의 고리 안에 준영이도 있으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이름이면 좋겠네요.

한마음한몸과 인연이 닿기까지

어떻게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많은들 알고계시는 ‘국민할매’ 태원이형의 형수님이 제일 먼저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지방 공연으로 바쁠 때, 아픈 태원형의 둘째 아들 우현이를 신부님들이 봐주셨거든요. 신부님들이 해외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듣는 것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던 신앙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신앙에 대한 안 좋았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현재 제 교적이 방배동 성당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인연을 맺었던 베드로 신부님과 아직도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을 갖고 지속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건,

결혼과 더불어 신앙 안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아내의 바람이었어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9년 간 만난 아내의 집안도 천주교 신앙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세례를 받고 명동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는 추천에 당첨되어 그것으로 프로포즈를 대신했어요(웃음). 그게 4년 전입니다. 결혼하면서 감사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저도 자연스럽게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늘 명동성당

근처에 있어서 눈에도 잘 보이고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자연스럽게 기부처가 되었습니다.

기념일 기부와 생애첫기부 이렇게 두 차례 기부를 진행하셨는데, 각각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백혈병 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를 희망하셨어요.

네, 물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중에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일단 아이들 자체가 많지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게 우리의 미래와 사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인 줄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나눔

평소 나눔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활동하면서 했던 나눔 활동이 있다면요?

제가 한 게 없어서 사실 인터뷰를 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프리랜서는 휴가라는 게 없어요. 아내와 다투는 첫 번째 주제로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거든요.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남들 다 휴가 가는 연휴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선공연 등에 초대되는 경우도 많으실 거 같아요.

태원이형한테 연락이 많이 가요. 저는 팀 멤버로서 함께 하죠. 팀이 움직일 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가끔은 페이가 전혀 없더라도, 평소에 봉사활동을 못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사실 가수 혼자서는 자기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연주하는 멤버들이라 기분 좋게 함께 갑니다. 얼마 전에 평화방송에도 출연했었어요, 굉장히 적은 보수로(웃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살기 힘든 시대에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 부문도 비슷해요. 특히 음악 쪽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문화생활이에요. 몇 가지만 남고 마니아 시장 등은 거의 전멸되죠. 기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눔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못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민해야 하는 힘든 시대인 거 같아요. 제 주변에 선생님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말하길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대요. 5포 세대, 7포 세대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꿈 이야기 등을 부탁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능한 한 꼭 가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꼭 실용음악을 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만, 이 분야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나중에 음악이 아닌 다른 일이라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느껴볼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음악이라면 음악을 통해서 느껴보라고요. 가능한 한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혹시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 기증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2012-13년 정도에 그룹 멤버들이 이미 장기기증 서약을 다 했습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팀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관련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가요(웃음).

듣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눔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보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네요(웃음).

마지막으로 한마음한몸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언제부턴가 좋은 일 하는 것을 드러내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고, 드러내지 않으면 너무 영향력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좋은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많이 칭찬해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 열애설보다 더 많이 뉴스거리가 된다면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의 다양화 속에 좋은 이야기들도 꼭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이웃이 겪는 매일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

환우지원 담당자 수기



박은미(마린) 환우지원 담당

암으로 절제한 아래턱뼈를
재건한 환우부터
자녀의 갑작스러운 병에
힘들어하는 부모까지...
환우와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제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환우지원을 담당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넘어갑니다. 독자, 후원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우지원에 관한 소식을 여럿 접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수녀원 내에서도 원목을 하는 수녀님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환자들을 방문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환우지원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이 자리에 와 있네요. 문득 전임 이레나 수녀님이 소임을 받을 때 마침 함께 있어서 식사를 하며 축하해주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그 자리에 제가 오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본부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백혈병 및 난치병 환자 8명과 장기지원 11명, 긴급지원 14명,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후원금 지원 2명까지 총 35명의 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일부 환자 및 그 가족들을 만나, 환우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그 동안 지원한 환자들 가운데 백혈병, 난치병 환자들을 제외하면 장기이식 대기자, 긴급, 후원금 지원 환자들은 병명이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같은 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환우들이라도 병명은 다 다른 것입니다. 저로서는 처음 들어본 병명이 많고 의료부분과 관계된 단어들도 낯설어서 검색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부는 지원목적에 따라 환자들을 지원하지만, 본부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입니다. 병원의 사회사업실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부의 지원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큰 삶의 전환점이 되는지를 환우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 하는 환자들을 지원하여 새 생명의 길에 나아가도록 돕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게 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아래잇몸암이 있던 한 환우의 경우, 독거세대로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 속에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랫잇몸암으로 아래턱뼈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 환우는 아래턱뼈의 재건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암으로 아래턱의 절반을 절제하여 위턱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안면기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확한 발음내기와 고형의 음식섭취가 불가능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관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피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우는 본부의 지원을 통해 허벅지에 있는 뼈로 재건 수술을 하였고, 필요한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치료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하였을 때, 환우는 아직 많이 부어있었고 다리도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며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몇번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또한 수술 전후가 너무도 다른 환우의 모습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본부의 지원으로 환우 한 분이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백혈난치 아동 중 올 초에 진단을 받아 이제 치료를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환아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게 지내던 환아가 입원하며 지내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환아가 아프게 된 것인지 의사에게 물었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그저 많은 아이들 중에 환아가 아프게 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다른 자녀들에게 신경도 쓰지 못하고, 도움 받을 친척도 없고, 생계를 위해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해서 잠시라도 퇴원을 하고 집에 갈 때도 쉬지 못한 생활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딱 하루만 쉬었으면, 딱 하루만 자면 좋겠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희귀질환으로 뼈가 소실, 용해되는 고함스병을 가지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아이의 병 치료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 병원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도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우지원을 통해 만나는 환우와 가족들은 본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도 감사해 하십니다. 이런 기관이 있고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모습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낮게 되면 꼭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방문 시 본부소개를 하며 본부가 종교단체인 만큼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직원이나 후원회분들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부에서 모든 환자들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간절한 환자들끼리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는 모습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큰 의미를 다시 새기곤 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나, 삶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원 분들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후원자 분들을 접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과 살면서는 나의 삶의 시작에 대해, 치매 할머니들과 살면서는 나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내 현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

당신의 나눔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전성실 현 나눔연구소 대표

15년 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아름다운 나눔수업>이라는 책을 내고 나눔교육을 위해 퇴직 후 전국으로 나눔을 알리러 다니며 나눔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samnim@hanmail.net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남이 시켜서 억지로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내 안의 욕구에 의해서 합니다. 그 욕구는 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의 나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지려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켜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시키는 사람의 요구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항하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는 주어지는 보상이 나보다 더 커져서 나는 소외됩니다. 반대로 저항을 할 때는 주어지는 처벌이 무서워 나의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든, 저항을 하든, 나의 욕구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타인의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나보다는 명령을 내린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통제에 따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통제에 따르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워 마감기한을 정하기도 하고 자신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 방송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래경연 대회를 보면 참가자들의 참가 동기나 참가하는 동안의 행동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눈치만 보면서 초조해하기도 하고,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경연 날에는 목이 쉬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심사위원과는 관계없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편곡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누군가의 통제 안에서만 하려는 것의 차이입니다. 참가자 중에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지만 그걸 부르기보다는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우 어렵거나 잘하는 노래를 부르려는 참가자들이 더 많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하고 싶은 노래를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잘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잘 부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은 노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경연대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눔이나 봉사를 할 때도 자신이 좋아서 할 때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보상이나 혜택 때문에 할 때가 다릅니다. 보상이 없을 때는 그저 그 자체가 좋아서 하던 사람도 보상이 얼마라도 주어지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나눔이나 봉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한 나눔이나 봉사가 보상을 받은 것보다 의미가 없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에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달시키는 작용입니다.
외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눔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자아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점수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봉사대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목적이 봉사점수인 학생들은 열심히 하던 봉사를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만둡니다. 어머니도 함께 말합니다. 하지만 봉사가 좋아서 봉사대에 참여한 학생은 봉사점수와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할뿐더러,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꾸준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거나 모금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바꾸고 싶은 문제가 목적인 사람은 사정상 기부를 못 하게 되거나 모금액이 적더라도 바꾸려 하는 문제에 대한 열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나 모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기부를 못 하거나 모금액이 적으면 바꾸려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잊고 실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L. 데시와 리처드 플래스트는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는 마음은 진정한 자아에서 나오며,
진정한 자아가 발달한 사람만이
기꺼이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음의 작동법, 164쪽>

나눔은 진정한 자아가 발달한 사람만이 기꺼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닌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는 나눔은 진정한 자아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에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은 자아의 손실이 아니라
자아의 온전한 작용이다.”

<마음의 작동법, 164쪽>

진정한 자아가 형성된 사람은 나눔을 손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달시키는 작용으로 봅니다. 외적인 동기에 의한 나눔으로는 진정한 자아발달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눔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자아발달에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나 보상에 의해서 나눔행동을 하는 것은 내 자아가치감 보다는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자아효능감이 떨어지면 나눔행동의 동기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행하는 나눔일 것입니다. ㊦

함께하는 마음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나의 나눔 조감도 살펴보기

미국의 기부 캠페인 전문 기획자이자 시민자선가를 대표하는 미국의 덴 팔로타(Dan Pallotta)는 기부에 관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기부에 참여한다면 스스로를 자선가라고 여기길 바랍니다.” 마치 자선사업가가 거액을 기부할 때처럼 그 기부처의 면면과 기부금의 용도를 꼼꼼히 따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꼭 금전적 기부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 또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을 원하는 본인의 목적 파악부터 나눔이 가능한 본부 또는 본부 이외의 조직이나 프로젝트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분야

- 1. 전체사업** 본부의 모든 후원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2. 지구촌 빈곤퇴치** 해외지역의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의료보건사업, 사회운동 등을 지원합니다.
- 3. 해외 긴급구호** 해외지역의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호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 4. 백혈병·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백혈병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5. 장기이식대기자 치료비 지원사업**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 환우들에게 수술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6. 자살예방 사업지원**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이웃들의 생명친구가 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살예방센터사업을 지원합니다.
- 7. 국내사회복지 지원사업** 국내 사회복지 산하단체 및 각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STEP 1

나눔의 동기 생각해보기



평소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요?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보면 마음이 아픈가요?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가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이나 의미를 두는 일, 그로부터 나눔이 시작됩니다.

STEP 2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생각해보기



경제적으로 넉넉한가요? 넉넉하진 않아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가요? 요즘들어 시간이 많은가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나요?
자신이 잘 할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넉넉한 것을 나눈다면, 그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나눔입니다.

STEP 3-1

비물질적 나눔

장기기증 Ⓜ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장기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가없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뇌사시 기증’과 ‘사망 후 기증’이 있습니다.

헌혈 및 헌혈증 기부 Ⓜ

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 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기증합니다.

자원활동 Ⓜ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놀이, 노력봉사 등을 진행합니다.

스마트기부

나무 심는 게임으로 실제 숲을 조성하는 트리플래닛, 걷는만큼 기부되는 빅워크 등 스마트폰을 통해 기부합니다.

100 하루 100원 모으기 Ⓜ

하루 100원씩 모아 기부합니다. 동전이 모여 빈곤국 어린이의 한 끼 식사가,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치료비가, 소외받는 이웃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기념일기부 Ⓜ

생일, 입학과 졸업, 취업 등 뜻깊은 날에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함으로써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합니다.

현미헌금 Ⓜ

매년 5월, 9월은 현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으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기업사회공헌 Ⓜ

사업후원, 물품후원, 나눔이벤트, 임직원 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조혈모세포기증 Ⓜ

혈액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백혈병, 혈액암 등의 환우를 위해 기증합니다.

기도 Ⓜ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위해 상시 또는 특별기도를 진행합니다.

재능기부

자신의 특거나 전문성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나눕니다.

생애첫기부 Ⓜ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같은 내 아이의 또래 친구들을 위해 잔치 비용을 후원금으로 내거나 선물받은 돌 반지 또는 축의금을 기부합니다.

유산기부 Ⓜ

우리의 유산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이도록 기부합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고객들의 성금을 전달해 사랑나눔을 실천합니다.

소유물 기부

쓰지 않는 옷,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여 판매금액이 소중한 곳에 쓰이도록 합니다.

STEP 3-2

물질적 나눔

따레빌에서 심은 변화의 씨앗

박수빈 띠앗누리 21기



현지 활동 네팔 포카라 따레빌 지역
기간 2016. 7. 18.(월) ~ 8. 2.(화)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커피 한 잔과 함께 에어컨을 틀고 앉아 여유 부리며 소감문을 쓰려니 따레빌(Tarebhir) 마을에서 비를 맞으며 덜덜 떨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울퉁불퉁한 돌길을 따라 산 위에 있는 따레빌 마을로 처음 올라가던 날, 아찔한 풍경을 바라보며 '네팔은 이런 곳을 운전해서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구간이나마 돌길을 깔아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따레빌 마을에서 내려오던 날에는 바깥 풍경보다 땅바닥에 깔린 돌길이 더 눈에 들어오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길을 깔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을지 그제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가 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네팔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평소 저는 정신 사납다는 이유로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만큼 가까이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띠앗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지내볼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한국에서의 저 같았다면 손에 라면스프를 잔뜩 묻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손부터 씻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인사를 하러, 제 손을 잡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따레빌 마을에서의 저는 스프가 잔뜩 묻은 손으로 제게 자신들의 점심인 라면땅을 나누어 주는 아이들과 함께 먹고, 또 그 손을 잡고 씨썸썸 놀이를 하고, 함께 춤을 추고, 안아주기도 하는 조금은 어색하고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주라는 시간의 첫 일정을 시작하던 날, 저는 며칠이 남았는지 세고 또 세어 보았습니다. 분명 쉬이 지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새 마지막 일정이 다가오니 남은 날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작별인사를 하면서도 울지 않았는데, 지나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숙해서 정을 주고 이별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한 채, 제 감정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는 과정도 당신이 의도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몸은 바빴지만, 머릿속은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불편하고 적응이 힘든 생활이었음에도 이해타산적인 것들은 생각할 일이 없는 나날이어서 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따레빌 마을에서의 일정을 끝마치고 오랜만에 핸드폰을 받으니 낯설었습니다. '내 핸드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핸드폰의 전원을 누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에 기쁘면서도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마주하게 될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눈앞에 미리 펼쳐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띠앗누리 21기 식구들과의 시간은 오랜만에 공동체 생활을 한 저에게 휴식과 같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같이 지내고, 먹고, 함께 자면서 피곤한 상황에서도 웃고, 서로 힘든 부분을 돕는 것이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신 당신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행복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21기 식구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팔에서의 기억을 돌아보면 저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밖에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려와 꾸밈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띠앗누리 21기 공동체와의 생활과 따레빌 마을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에서 당신께 더 다가가는 선택을 하도록 도울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

가게는 변해도 나눔은 그대로

나눔가게·기업 25호
‘제오헤어 수유역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나눔가게는 서울시 성북구 수유역에 있는 제오헤어 수유역점입니다. 이곳은 김태형(발렌티노) 후원자님께서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연 헤어샵인데요. 김태형님은 지난 2012년 10월, 처음 본부와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가게 소개 및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태형 발렌티노입니다. 원래 성신여대 앞에서 하티헤어라는 미용실을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5개월 전 쯤 이곳 수유역에 새롭게 가게를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눔가게 상호도 처음엔 하티헤어로 시작했고, 이전하면서 제오헤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주교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녔고, 본당은 돈암동 성당인데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요즘은 성당에도 자주 나가지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본부에 기부를 해주셨는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본부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본부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았고, 한마음한몸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하고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제오헤어 수유역점

대표 김태형 발렌티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14 2층

문의 02)902-3766,

blog.naver.com/tae00007

영업시간 오전 10시 반 ~ 오후 11시

나눔가게로 등록도 하시고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특별히 지원을 바라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모든 곳에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지구촌 빈곤퇴치 분야에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국가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선 사업적으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운영해서 함께 하는 직원들도 잘 성장시키고, 직원들이 자신의 매장을 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이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우는 것입니다. 나눔도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항상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이러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은 당연한 것이다.’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만이라도 서로 나누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유로운 것은 아니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서로 조금씩 나누고 도우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실 다른 회원들께도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처음에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정성,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하시고 나면 마음도 편해지시고, 무언가 느껴지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김태형 발렌티노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꾸고 계시는 꿈 반드시 이루시길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눔가게·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 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2016년도 가을호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

강선우 2015.09.03생 父 강무성 母 김윤숙 | **강인준 요셉** 2012.03.28생 父 강호원 母 이선규 | **강지우 그라시아** 2015.08.25생 父 강성호 母 정혜은 | **고은유** 2015.09.24생 父 고영섭 母 신지현 | **곽유주** 2016.02.14생 父 광석환 母 이은희 | **권민을 가브리엘** 2016.01.31생 父 권태영 母 윤세진 | **권민채** 2015.09.04생 父 권기철 母 이진숙 | **권용재** 2016.01.04생 父 권준교 母 고은선 | **권지호 이레네** 2015.07.08생 父 권준하 母 김민선 | **권하성** 2015.06.03생 父 권상혁 母 남지선 | **김건우** 2014.07.04생 父 김원용 母 전민란 | **김규린 프란체스카** 2015.06.03생 父 김지수 母 전진령 | **김니연 세레나** 2015.07.22생 父 김현구 母 이창윤 | **김단우** 2015.08.02생 父 김준규 母 채진희 | **김도현 세레자 요한** 2007.06.12생 父 김수영 母 손지연 | **김민결** 2015.06.09생 父 김기범 母 민수진 | **김사랑** 2015.07.03생 父 김삼영 母 손부영 | **김상현 안토니오** 2015.08.10생 父 김민수 母 성숙희 | **김서우** 2015.06.10생 父 김대중 母 강세훈 | **김사진 스테파노** 2015.07.30생 父 김형민 母 김명화 | **김선우** 2016.02.24생 父 김원기 母 배난주 | **김성용 베네딕도** 2007.09.10생 父 김상수 母 김장아 | **김수현** 2015.06.21생 父 김정모 母 이인영 | **김승진** 2015.08.13생 父 김태산 母 박은숙 | **김시현** 2015.07.10생 父 김보규 母 박혜민 | **김아인 루피나** 2015.07.20생 父 김성찬 母 최진영 | **김연재 바오로** 2015.05.31생 父 김창호 母 남주연 | **김연준 사도요한** 2013.07.11생 父 김창호 母 남주연 | **김예랑** 2015.09.07생 父 김광렬 母 박지영 | **김윤솔** 2015.09.08생 父 김형근 母 조희연 | **김윤솔** 2016.02.22생 父 김형민 2013.08.12생 父 김지수 母 한송희 | **김은빈** 2013.08.12생 父 김지우 母 이나래 | **김은찬 대건 안드레아** 2015.06.27생 父 김태환 母 김아라 | **김재승 이나시오** 2015.06.24생 父 김원섭 母 정미연 | **김재현 마르티노** 2015.07.01생 父 김필규 母 최민정 | **김재아** 2015.08.25생 父 김홍철 母 이새롬 | **김지은** 2015.08.13생 父 김경민 母 이현주 | **김지은** 2016.05.19생 父 김용기 母 박유리 | **김태림 스티븐** 2015.07.14생 父 김주윤 母 김혜영 | **김택진 바오로** 2015.06.30생 父 김채호 母 이영혜 | **김해한** 2015.05.22생 父 김수훈 母 박수선 | **김현수 마리아** 2015.07.06생 父 김대호 母 오승영 | **나지호 라파엘** 2016.04.06생 父 나준상 母 배성은 | **노유하 소피아** 2015.07.15생 父 노경수 母 윤인아 | **노혜림** 2015.06.22생 父 노경록 母 김효원 | **류다은** 2015.05.12생 父 류태경 母 정선혜 | **류다은** 2015.06.29생 父 류상진 母 김미강 | **맹서호 님윗** 2015.09.11생 父 맹상윤 母 임세영 | **문건 안드레아** 2015.07.05생 父 문석민 母 서주연 | **문극라** 2016.03.24생 父 문원우 母 정미래 | **문지호 미카엘** 2014.07.04생 父 문성준 母 위지란 | **민소은** 2015.05.11생 父 민상현 母 신서현 | **박경비** 2015.06.01생 父 박영규 母 최승미 | **박도연** 2015.06.28생 父 박은철 母 이윤실 | **박라은 아우로라** 2015.08.08생 父 박지윤 母 김태린 | **박민아 프란치스카** 2014.04.28생 父 박영진 母 손지혜 | **박서안** 2015.06.02생 父 박승서 母 정수민 | **박서영** 2014.07.14생 父 박주석 母 김효영 | **박서민 소피아** 2015.05.27생 父 박태진 母 신은수 | **박성호** 2016.04.30생 父 박상산 母 양한나 | **박소을 이사벨** 2015.07.02생 父 박수철 母 강화연 | **박수현** 2015.12.0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박준우** 2015.06.03생 父 박성규 母 서미주 | **박지우 유스티나** 2015.06.11생 父 박성범 母 김현희 | **박지호 바오로** 2016.04.05생 父 박영준 母 홍상희 | **박혜린 레나** 2015.04.17생 父 박종훈 母 이하늘 | **배서연** 2016.03.18생 父 배진우 母 김진영 | **백유안** 2015.05.29생 父 백창현 母 김보라 | **백재민 릴리오사** 2015.07.14생 父 백정현 母 최혜정 | **변지환** 2015.05.02생 父 변기성 母 이아진 | **성채원** 2015.09.01생 父 성기운 母 오재경 | **송가은 보니파스** 2016.02.10생 父 송순환 母 김보경 | **송경 마티아** 2015.07.28생 父 송운식 母 권지영 | **송영지 플로라** 2012.02.20생 父 송문창 母 신혜숙 | **송유민** 2016.06.13생 父 손지희 母 한제림 | **손지민** 2016.07.17생 父 송문창 母 신혜숙 | **손지환** 2016.01.25생 父 손정오 母 이지은 | **송다니엘** 2016.03.05생 父 송승희 母 오미카엘라 | **송민유** 2015.09.03생 父 송오영 母 임연희 | **송윤솔** 2016.05.05생 父 송영익 母 진세은 | **송재원 가브리엘** 2012.06.06생 父 송일환 母 배소영 | **송재혁 미카엘** 2009.05.12생 父 송일환 母 배소영 | **송지호 가브리엘** 2014.06.27생 父 송정훈 母 장민희 | **신수민 루피나** 2015.08.13생 父 신상곤 母 남형은 | **심연재** 2015.06.19생 父 심준보 母 이윤진 | **안정우 루도비코** 2015.08.25생 父 안재성 母 이유은 | **양선우** 2013.06.27생 父 양준호 母 김현이 | **양혜연 에밀리아** 2015.08.06생 父 양필수 母 정민영 | **양지우 소화테레사** 2015.10.17생 父 양진영 母 김수지 | **양진우** 2015.07.17생 父 양준호 母 김현이 | **여시울** 2016.05.01생 父 여태목 母 박지원 | **연주아** 2016.08.08생 父 연경민 母 김연정 | **왕혜아 스티븐** 2015.05.25생 父 왕희성 母 박혜림 | **우다연** 2015.08.31생 父 우태석 母 이애니 | **원승록** 2015.04.30생 父 원유식 母 김은영 | **유서민 베네딕다** 2015.07.12생 | **유수아** 2015.08.08생 父 유백민 母 유유리 | **유아인** 2015.06.12생 父 유현욱 母 차해주 | **윤불하** 2015.05.10생 父 윤찬호 母 이보람 | **은동미(태영)** 父 김영규 母 최진영 | **이가윤 안나** 2015.07.24생 父 이규연 母 이진미 | **이경률** 2016.04.05생 父 이진관 母 황유진 | **이남윤 스티븐** 2015.08.05생 父 이경구 母 김민지 | **이다인** 2016.05.07생 父 이경훈 母 엄보경 | **이도현** 2015.08.05생 父 이문호 母 박진영 | **이두나(태영)** 父 이경민 母 안효연 | **이로은 미카엘라** 2015.10.22생 父 이재관 母 양미경 | **이루린 벨라멧다** 2016.02.13생 父 이석영 母 김혜린 | **이민준** 2015.07.06생 父 이승훈 母 박경진 | **이서연** 2015.08.26생 父 이성진 母 장성희 | **이서영 글라라** 2015.08.31생 父 이동준 母 이지현 | **이서진** 2015.06.15생 父 이윤규 母 조혜란 | **이선주** 2015.07.30생 父 이지형 母 김효선 | **이선호** 2015.06.28생 父 이동호 母 이선영 | **이세정** 2015.06.22생 父 이승준 母 김정록 | **이세주** 2015.06.22생 父 이승준 母 김정록 | **이승민 니콜라오** 2015.07.09생 父 이동형 母 김희선 | **이승민 프란치스코** 2014.08.08생 父 이광순 母 정규연 | **이시은** 2015.07.25생 父 이승철 母 강혜정 | **이연우** 2015.08.07생 父 이승관 母 최원희 | **이연호 라파엘라** 2015.07.06생 父 이경훈 母 이수진 | **이윤성** 2015.11.02생 父 이태형 母 허서연 | **이윤재 바오로** 2015.06.28생 父 이현웅 母 이은숙 | **이름** 2015.09.04생 父 이종원 母 황성희 | **이주원** 2016.04.08생 父 이상훈 母 이민선 | **이주하** 2015.06.05생 父 이가원 母 구자연 | **이준서** 2015.05.17생 父 이승훈 母 조하나 | **이준서 다니엘** 2006.08.25생 父 이주훈 母 태은경 | **이준희** 2015.06.25생 父 이주훈 母 태은경 | **이지민** 2015.07.16생 父 이웅세 母 조은영 | **이지민** 2015.08.13생 父 이우현 母 박아름 | **이지민 빅토리아** 2015.07.31생 父 이진욱 母 한아름 | **이지미 카타리나** 2015.07.30생 父 이형식 母 박수미 | **이지한** 2015.05.26생 父 이정훈 母 김은영 | **이지호 소피아** 2015.09.30생 父 이영우 母 김윤정 | **이지호** 2015.05.29생 父 이기재 母 김정혜 | **이재은 아벨리나** 2013.08.22생 父 이정근 母 안소빈 | **이태린 릴리안** 2015.06.07생 父 이용권 母 함재희 | **이하은 프란치스코** 2015.05.11생 父 이석진 母 박민숙 | **이한성** 2016.06.04생 父 이장훈 母 최현정 | **이해인 라파엘** 2015.07.06생 父 이경훈 母 이수진 | **이해나** 2016.04.22생 父 이상호 母 감미영 | **이호연** 2015.06.25생 父 이기동 母 양설아 | **임가은** 2015.06.13생 父 임완규 母 송영애 | **임동욱 마르코** 2015.04.25생 父 임정현 母 소유나 | **임아을** 2015.06.13생 父 임완규 母 송영애 | **임예린 프란치스카** 2015.07.30생 父 임정윤 母 박하늬 | **임지아 미카엘라** 2015.06.26생 父 임형민 母 홍은영 | **임해빈 베네딕도** 2014.07.11생 父 임정원 母 각지윤 | **장우진** 2011.03.25생 父 장현우 母 유선미 | **장하진** 2016.05.14생 父 장현우 母 유선미 | **장호진** 2013.04.03생 父 장현우 母 유선미 | **정아을** 2015.06.28생 父 정석후 母 오지연 | **정유나 소화테레사** 2015.10.02생 父 정용준 母 김혜림 | **정윤재 마르첼리노** 2015.10.26생 父 정동열 母 임혜경 | **정인호** 2015.08.18생 父 정원재 母 김수연 | **정찬영 대건 안드레아** 2016.02.20생 父 정해영 母 박빛나 | **정하을 베로니카** 2015.06.27생 父 정찬교 母 최혜인 | **조다원 리디아** 2015.06.27생 父 조경열 母 양승은 | **조수아** 2015.08.12생 父 조동현 母 전미숙 | **조시현** 2015.07.21생 父 조동우 母 정인영 | **조영웅 돈보스코** 2015.05.31생 父 조정현 母 김영아 | **조예원 아녜스** 2015.09.14생 父 조용현 母 박희연 | **조용훈** 2015.07.13생 父 조원학 母 장미라 | **조인서 프란치스코** 2015.05.17생 父 조순근 母 김선영 | **조준희** 2015.08.15생 父 조성찬 母 권성연 | **조현영 안토니오** 2015.06.16생 父 조준호 母 김윤주 | **조현진** 2015.07.12생 父 조완재 母 김가은 | **주하랑 베네딕도** 2015.07.13생 父 주재규 母 김유미 | **주현우 필립보** 2009.05.30생 父 주동욱 母 신동원 | **차태원** 2015.06.19생 父 차동호 母 변은주 | **채지민 소피아** 2015.05.05생 父 채용호 母 김지영 | **최서연** 2016.04.10생 父 최정호 母 이혜진 | **최혜승 스티븐** 2014.08.04생 父 최재철 母 박은희 | **최연아** 2015.06.02생 父 최성진 母 노지현 | **최원준** 2015.04.23생 父 최형민 母 김태은 | **최을서** 2015.09.08생 父 최규철 母 강서윤 | **최윤선** 2015.08.15생 父 최용원 母 김상경 | **최재호** 2015.06.18생 父 최경환 母 심연균 | **최정우 도미니코** 2015.08.15생 父 최윤기 母 김민정 | **최해은** 2015.06.17생 父 최진혁 母 이다정 | **편재현** 2015.07.20생 父 편정환 母 박지영 | **하나해** 2015.04.30생 父 하상우 母 장미선 | **홍승기 사도요한** 2016.02.20생 父 홍성민 母 이병조 | **홍예준** 2012.12.13생 父 홍석진 母 안지영 | **홍은재 그라시아** 2015.07.30생 父 홍혁기 母 채원정 | **홍지한** 2016.07.27생 父 홍한솔 母 김지현

두 번째 기부

곽재인 클라라 2015.08.11생 父 광규섭 母 조경화 | **길다인 까리타스** 2007.02.05생 父 김준일 母 강현지 | **김규원** 2013.11.07생 父 김현태 母 자성미 | **김라은 요안나** 2014.06.18생 父 김동환 母 최수진 | **김비오 프란치스코** 2014.07.21생 父 김주영 母 강구연 | **김서현** 2014.08.06생 父 김태성 母 서민희 | **김재을 아우구스티노** 2014.06.25생 父 감치겸 母 한희령 | **김지우 올리아나** 2015.05.22생 父 김정현 母 정혜진 | **김하은 클라우디아** 2015.08.07생 父 김률 母 전진선 | **김해은 바오로** 2014.06.30생 父 김성준 母 황하나 | **김현우 사도요한** 2009.07.29생 父 김동휘 母 김민정 | **문서현 프란치스코** 2014.07.22생 父 문종석 母 김영은 | **문소현 모니카** 2014.08.27생 父 문성원 母 아아름 | **문유이** 2014.08.22생 父 문지강 母 류아영 | **박시현 바오로** 2015.06.17생 父 박상도 母 윤지혜 | **박예은 클로리아** 2014.02.19생 父 박용길 母 오재숙 | **배수현** 2014.09.04생 父 배태식 母 이나린 | **범준우 아우구스티노** 2012.08.01생 父 범지원 母 고준경 | **범지우 로사** 2015.05.02생 父 범지원 母 고준경 |



임아을, 임가은



김동하 다니엘



염호준 세레자요한



조윤호 알베르토, 조원호 테오도로, 조예원 아녜스



윤주미 마리아

서우재 2016.04.20생 父 서범석 母 이경미 | **손승우** 2014.09.03생 父 손철수 母 강근혜 | **신준영 마리아** 2011.10.29생 父 신정호 母 길태영 | **오서하** 2013.07.09생 父 오재영 母 김은주 | **유승재 파비아노** 2014.08.20생 父 유혁주 母 이고은 | **유시현 바르나바** 2014.06.10생 父 유대한 母 손해민 | **윤여강** 2014.07.03생 父 윤석문 母 김은희 | **이대영 이나시오** 2014.07.14생 父 이재철 母 박자우 | **이도담 리디아** 2013.08.03생 母 강유진 | **이서준** 2014.01.17생 父 이주희 母 장윤희 | **이아람** 2016.01.19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 **이연우** 2015.09.03생 父 이정호 母 임화란 | **이준서 바오로** 2014.08.13생 父 이성희 母 조정란 | **전유주 켈마** 2015.02.27생 父 전민재 母 이소현 | **정다빛 다비드** 2014.07.16생 父 정세영 母 이지연 | **정주영** 2015.06.26생 父 정상일 母 김근화 | **정하준 요셉** 2014.09.26생 父 정영준 母 최상민 | **조영록 라파엘** 2012.05.19생 父 조진용 母 김희선 | **조원호 테오도로** 2013.11.07생 父 조용현 母 박희연 | **조윤호 알베르토** 2013.11.07생 父 조용현 母 박희연 | **조자빈** 2015.04.02생 父 조강래 母 김다은 | **주하을 헬레나** 2014.06.28생 父 주동욱 母 신동원 | **차은아 페트로** 2015.06.29생 父 차원철 母 최서연 | **최하을 베로니카** 2016.01.18생 父 최충범 母 진승희 | **하정후 라파엘** 2014.06.20생 父 하민덕 母 최현선 | **홍서준 베드로** 2014.08.01생 父 홍진석 母 민선우 | **홍유준** 2016.02.05생 父 홍상기 母 나수현 | **황서진 올리비아** 2015.06.15생 父 황수호 母 김가베

세 번째 기부

권승후 아론 2012.12.21생 父 권준하 母 김민선 | **기민우 요한** 2006.12.07생 父 가석권 母 박주원 | **김미가** 2013.06.12생 父 김수환 母 양정미 | **김은재** 2013.07.04생 父 김민규 母 이예진 | **김지아 마리아** 2013.07.18생 父 김주한 母 김민희 | **박정원** 2011.08.17생 父 박상중 母 장지영 | **배지호** 2013.07.18생 父 배종성 母 임규현 | **백준열 아우구스티노** 2013.08.21생 父 백익환 母 진민경 | **사유민 마리스텔라** 2014.05.14생 父 사장빈 母 두슬기 | **심소은 품포사** 2013.07.09생 父 심현보 母 이예린 | **심예원** 2014.06.02생 父 심상우 母 손지현 | **안서정 켈리나** 2014.08.31생 父 안희준 母 이자영 | **양한재 미카엘** 2013.09.11생 父 양경오 母 이지혜 | **엄정훈** 2013.06.19생 父 엄준용 母 박은정 | **염호준 세레자요한** 2013.06.17생 父 염동훈 母 이하림 | **윤주미 마리아** 2013.06.12생 父 윤종근 母 이우정 | **윤태영 다니엘** 2010.03.27생 父 윤선웅 母 김기욱 | **윤하영 로사** 2007.08.27생 父 윤선웅 母 김기욱 | **윤혜림 마리아** 2013.06.04생 父 윤형준 母 양선영 | **이리원** 2014.05.14생 父 이민우 母 허윤선 | **이문정** 2007.05.24생 父 이준수 母 이상은 | **이시울 에스텔** 2012.07.23생 父 이서민 母 문경자 | **이요한 요한** 2013.10.23생 父 이아한 母 김혜림 | **이윤재** 2014.09.12생 父 이대근 母 윤기연 | **이은서 글로리아** 2013.08.01생 父 이정록 母 한혜영 | **이하은** 2013.07.16생 父 이종호 母 임혜연 | **이현우 가브리엘** 2013.06.27생 父 이봉원 母 강지은 | **임해아** 2013.08.06생 父 임상우 母 서유나 | **정현진 베드로** 2012.06.26생 父 정준모 母 김나래 | **진여운** 2013.04.06생 父 진동섭 母 문아미 | **최아을 에스텔** 2012.07.02생 父 최인환 母 김선영 | **최하경 데레사** 2015.08.15생 父 최동범 母 최아나 | **함승연 엘리사벳** 2013.06.29생 父 한용빈 母 김세원 | **한원준** 2012.08.28생 父 한창환 母 이미지 | **함지완 레오** 2013.09.13생 父 함병훈 母 하유리 | **함지연 보나** 2011.05.03생 父 함병훈 母 하유리 | **홍지우 마리아 이사벨라** 2012.08.29생 父 홍원기 母 김민지

네 번째 기부

고은혜 스티븐 2013.05.19생 父 고재우 母 김이수 | **권태린 미카엘라** 2012.06.22생 父 권혁재 母 이수경 | **권태린 가브리엘라** 2012.06.22생 父 권혁재 母 이수경 | **기민우 요한** 2006.12.17생 父 가석권 母 박주원 | **김나을 마리스텔라** 2012.05.23생 父 김동진 母 황수현 | **김연아 엠마** 2012.06.29생 父 김호진 母 박주형 | **김요한 세레자요한** 2007.06.18생 父 김건수 母 백미영 | **박지유** 2013.07.12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 **서민지 마리스텔라** 2012.07.17생 父 서영부 母 이정은 | **신지섭 대건 안드레아** 2013.07.01생 父 신동일 母 박수민 | **심을** 2013.08.14생 父 심현보 母 김지은 | **오시현 라파엘** 2012.06.25생 父 오강민 母 이혜정 | **오윤우 안드레아** 2009.06.07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유서진 에스더** 2012.08.10생 父 유혁주 母 이고은 | **윤분도 베네딕도** 2013.07.05생 父 윤정희 母 안정아 | **윤혜정 엔다** 2012.03.08생 父 윤형준 母 양선영 | **이가은 스티븐** 2012.08.31생 父 이규형 母 김윤희 | **이수현 프란체스카** 2013.07.22생 父 이정원 母 이상인 | **이승수 스테파노** 2012.06.13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 **이윤영 안나** 2012.08.31생 父 이대근 母 윤기연 | **이종현 대건 안드레아** 2012.08.27생 父 이인기 母 이우영 | **이하열 크리스티나** 2012.07.24생 父 이경민 母 홍혜림 | **정하을 로사** 2012.05.05생 父 정영준 母 최상민 | **조유슬** 2011.08.05생 父 조창환 母 최윤정 | **한서준 스테파노** 2010.06.24생 父 한창환 母 이혜진 | **홍상현** 2013.05.26생 父 홍재준 母 정지영 | **황승현** 2012.08.28생 父 황준하 母 황윤진

다섯 번째 기부

김리예 올리아 2011.05.23생 父 김선준 母 장진영 | **김유현 프란치스코** 2012.07.29생 父 김도연 母 류미숙 | **송예은 에스텔** 2009.09.03생 父 송재욱 母 이혜진 | **신은규 그레고리오** 2012.08.14생 父 신준현 母 이윤주 | **유은준** 2012.09.04생 父 유형석 母 이지원 | **이수인 베로니카** 2009.06.28생 父 이정원 母 이상인 | **이승린 라파엘** 2014.05.11생 父 이경민 母 안효연 | **이은성** 2011.08.24생 父 이태형 母 허서연 | **이지우 엘리사벳** 2011.09.05생 父 이택근 母 이경화 | **장수아** 2011.06.01생 父 장진성 母 이장화 | **전상훈 스테파노** 2009.01.26생 父 전진 母 홍은주 | **한승우 라파엘** 2010.07.29생 父 한상훈 母 김주연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공지환&한창임 스티븐 결혼20주년 | **김요한 요한 & 이현화** 데레사 결혼15주년 | **김치현 프란치스코 & 김수경** 마가렛 결혼2주년 | **박근우 베드로&양유진** 소피아 결혼기념 | **박상준 니콜라스 & 주라영** 글라라 결혼15주년 | **박우진 시몬 & 김지나** 레지나 결혼1주년 | **배주한 & 김선주** 안나 결혼기념 | **빈센토 들로레스** 아브라함 & 김태희 소화테레사 결혼기념 | **오민호 베드로 & 경미현** 안나 임신기념 | **이대길 & 차미라** 혼인신고기념 | **이수민 베드로 & 정연희** 데레사 결혼2주년 | **이우재 & 최윤미** 결혼7주년 | **이유범 미카엘&주하우** 미카엘라 감사기부 | **이재관 로베르토 & 양미경** 스티븐 결혼10주년 | **정찬희 & 이지현** 결혼1000일 | **정철용 베드로&김지희** 소화테레사 결혼3주년 | **홍한솔 산치오 & 김지현** 결혼1주년

감사 기부

김기욱 베드로 축일기념 | **김지석** 요셉 입학기념 | **김현도** | **노은영** 베로니카 박사학위 취득기념 | **박용** | **최현재** 알베르토 취임기념 | **한무리** 미카엘라 취임기념 | **한인소** 베로니카 합금기념 | **홍진용** 루카 세례기념 | **황윤주** 미카엘라 | **황호진** 요한 승진기념

여섯 번째 기부

김성용 2012.06.27생 父 김주환 母 유효빈 | **김영선 소피아** 2010.07.24생 父 김병록 母 이수희 | **김영준 미카엘** 2010.07.24생 父 김병록 母 이수희 | **김예을** 2012.06.27생 父 김주환 母 유효빈 | **이지민 에스텔** 2011.07.13생 父 이윤준 母 우혜영 | **홍은진 마리아** 20

1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릴레이 자살예방캠페인 개최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릴레이 생명존중·자살예방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9월 1일(목), 2일(금) 양일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개최하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9월 10일(토)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개최된 '생명보듬 함께 걷기' 행사에서 기독교자살예방센터와 연대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 24일(토)에는 서울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강동구청과 연대하여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현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잇기 쉬운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족석에서 찍은 사진을 조그마한 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가족사랑' 액자 및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책갈피'를 배포하였습니다.

3

성남중학교 생명나눔 교육 실시

지난 7월 19일 성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동영상 시청, 퀴즈 등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생명공학과 관련한 이슈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윤리적으로 올바른 생명나눔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지구시민교육 띠앗누리 21기 활동 실시



본부의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띠앗누리 21기가 지난 8월 5일(금),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누리 21기는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7월 18일(월)부터

2

자살유가족을 위한 '해바라기 슬픔돌봄 피정'



지난 8월 31일(수)부터 9월 1일(목)까지 서울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서로의 상실을 나누고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바라기 슬픔돌봄 피정'을 진행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 개최



본부는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7월 11일 가톨릭생명운동 전국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는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11개 교구 생명운동 실무자가 참여하였으며, 각 교구 생명운동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내년도 (재)바보의 나눔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교회 내 안정적인 생명운동 확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6

생명나눔 캠페인 전개



본부는 자비의 희년을 맞아 지난 9월 3일(토)과 4일(일) 양일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자비의 희년 박람회'와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자비의 일꾼과 봉사자들을 위한 희년행사'에 참여하여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생명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미안마 현장 모니터링 실시



지난 6월 20일(월)부터 30일(목)까지 미안마 양곤, 파안, 라킨 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기관들이 가난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

환우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6. 7~9. | 단위: 만 원

구분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사업	황OO	신경모세포종	서울대병원	1,000
	김OO	시신경암	국립암센터	1,000
	최OO	부신 신경모세포종	국립암센터	1,000
	황OO	만성 골수성 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이OO	상세불명의 무형성빈혈	고대안암병원	1,000
	유OO	다발성골수증	국립암센터	500
	장OO	급성골수성백혈병	국립암센터	900
	서OO	신장이식, 만성신장병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10
	윤OO	특발성 폐섬유증	연세대세브란스병원	500
	최OO	다발성 골수증	국립암센터	900
	양OO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서울대병원	500
	김OO	대동맥판협착 당뇨, 만성신장질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1,000
	황OO	유방암, 갑상선암	국립암센터	500
	한OO	만성복합치주염	푸르메센터	300
	박OO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국립암센터	300
	조OO	직장주변의 복합치루, 내분비장애	고대안암병원	500
긴급지원사업	정OO	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700
	레O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700

2016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비의 희년 캠페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2015년 3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특별 희년' 거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은 2015년 12월 8일(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시작하여 2016년 11월 20일(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마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의 특별 희년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칙서 '자비의 얼굴(Misericordiae Vultus)'을 통해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교회와 각 개인이 특별한 은총의 때와 영적 쇄신의 계기로 삼고, 세상에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 주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약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다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며, 지금은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상의 행동에서, 사랑은 생각과 태도와 습관으로 드러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의미로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상처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특별히 이 '희년'에 상처입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아픔을 덜어주고, 자비로 감싸주며, 연대와 배려로 치유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권고대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아 '가톨릭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의 의미를 깨달아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과 질병, 차별로 고통받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한 기도와 나눔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atholic Merciful like Father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낮선 세상에서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발을 헛디디는 순간
모두가 뛰어들어 구해낼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마음한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안내

정기후원

지로자동이체(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소식지에 동봉되어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월 1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지로납부

지로번호: 7522277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횟수를 격월, 분기, 상하반기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

계좌이체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신한은행 140-001-982286
외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신용카드, 휴대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유무선 전화를 통해 ARS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이
사용하시는 전화요금에서 결제됩니다.